

보도해명자료 (‘16. 11. 2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‘10대 그룹 CEO 간담회도 중단…투자 끊길 위기
‘설상가상’ (문화일보, 11.22)

1. 기사 내용

- 「청탁금지법」 시행, 기업들의 기부금 강제 모금 문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에 따라 산업부가 10대 그룹 CEO 간담회를 잠정 중단키로 하면서 산업부-재계와의 소통 채널이 막혀 경제에 영향 우려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산업부는 ‘10대 그룹 CEO 간담회’를 중단한 바 없음
- 산업부는 그동안 산업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10대 그룹 CEO 간담회 뿐 아니라, 주력산업·신산업별로 업계 간담회,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,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해왔음
 - 주력산업 분야는 조선·철강·석유화학 등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,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경쟁력 강화방안*을 도출한 바 있으며,

* 철강·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(9.30),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(10.31)

< (참고) 6월 이후 산업부 장관-재계와의 주요 소통 현황 >

·(주력산업 관련) 철의 날 계기 철강업계 간담회(6.9), 조선업계 CEO 간담회(6.29), 조선 3사 등 조선업 밀집지역(거제) 업계 간담회(7.23), 자동차 업계 CEO 간담회(8.17), 석유화학 업계 간담회(9.28), 석유화학산업 간담회(11.9) 등

- 신산업 분야도 4월부터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‘신산업 민관협의회’ 정례 운영, 분야별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, 간담회 등 기업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왔음

< (참고) 6월 이후 산업부 장관-재계와의 주요 소통 현황 >

·(신산업 관련) 2차 신산업 민관협의회(6.27), 3차 신산업 민관협의회(11.7), 에너지 미래전략위원회(7.5),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(7.22), 수소차 융합 얼라이언스(8.24), ESS 융합 얼라이언스(8.29), 로봇산업 간담회(10.11)

-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애로·현안 논의 및 투자유도 등을 위해, 10대 그룹 CEO 간담회는 물론, 업종별·분야별 간담회, 현장방문 등 산업계와의 소통 노력을 다각적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임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황수정 과 장 (044-203-4210)
김태형 사무관 (044-203-4214)